

#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전력 5개사 정원 533명 줄인다

한전, 정원 1.1% 수준 260명 감축 '공공기관 혁신계획' 정부에 제출  
한전KPS 109명·KDN 28명·MCS 172명·전력거래소 22명 등 조정  
한전 목표부지 매각...사내 주담대·이자율 상향 조정 등 교육책 마련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전력그룹사 5곳의 정원이 533명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 정원은 기존보다 260명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공기업별 혁신계획' 자료에 담겼다. 정부는 지난 7월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각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에 자체 혁신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력과 한전 KDN,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전MCS가 제

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이들 회사가 '기능조정'과 '조직 인력 효율화' 대상으로 삼은 인원은 각각 263명과 566명 등 829명이다. 이들은 조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유형 인력'으로 분류된 것이다. 여기에서 기능을 조정하고 '효율'에 맞게 재배치 하자는 인력 296명을 제외하면 총 533명이 정원에서 빠지게 된다. 한전에서는 기능조정 83명과 조직인력 효율화 415명 등 498명을 조정 대상으로 제출했다. 498명 가운데 238명만을 재배치하면서 정원은 260명(2만3728명→2만3468명) 줄게 된다. 한전이 반납하는 정원 260명은 현재 정원의 1.1% 수준이다. 한전은 상위직급을 축소하고 관리체계를 광역화 하는 등의 노력을 들여 최대한 조직 규모를 줄일 계획을 세웠다. 해외 석탄화력사업을 축소해 기능을 조정하고 소

■ 혁신도시 전력그룹사 정원감축 계획

	총 조정 (A+B-C)	기능조정 (A)	조직인력효율화 (B)	정원재배치 (C)	현 정원	조정후 정원
한국전력	260	83	415	238	23728	23468
한전KDN	21	7	21	7	2990	2969
한전 KPS	62	28	81	47	6712	6650
전력거래소	18	2	20	4	561	543
한전MCS	172	143	29	0	4973	4801
계	533	263	566	296	38964	38431

〈단위:명〉

〈자료:정일영 의원실〉

규모 사업소 광역화, 변전소 교대근무를 개선하는 등 지방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지원인력을 줄일 방침까지도 내놓았다. 한전에 이어 조정 인원은 한전MCS가 기능조정 143명·효율화 29명 등 17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한전KPS 기능조정 28명·효율화 81명 등 109명 ▲한전KDN 기능조정 7명·효율화 21명 등 28명 ▲전력거래소 기능조정 2명·효율화 20명 등 22명 순으로 조정 대상이 많았다. 나주 혁신도시 전력그룹사들은 인력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효율화', '자산 효율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을 담은 혁신계획을 마련했다. 부동산과 골프장·숙소 회원권을 팔고 임원 사무 공간을 줄인다. 직원 대상으로는 사내 주택 임대료 지원(LTV)을 적용하고 사내대출 이자율을 상향 조정한다.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장학금 기준 강화 등 '교육책'도 눈에 띈다. 정부가 제안한 '경상운영비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 예산과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절감해야 한다. 내년 절감 목표는 전년보다 경상경비는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으로 세워야 한다. 한전은 올 연간 예산을 214억원 절감하는 등 2016년까지 5년간 1467억원 아끼기로 했다. 올 하반기 예산 대비 절감률은 경상운영비 11.6%, 업

무추진비 40%로 나타났다. 한전은 46억원 상당 목표연전소 부지 등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 부동산 7건을 매각해 3342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기존연계적 초과한 사육을 매각하거나 13개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정비하는 등 자산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KPS도 올 하반기 경상경비를 10.7%, 업무추진비는 20.0% 줄인다. 내년 절감률은 경상경비 3.0%, 업무추진비 20.0%로 세웠다. 내년 2027년까지 매각할 부동산은 309억원 상당이다. 나머지 혁신도시 전력그룹사가 올 하반기 세운 예산 절감률은 ▲한전KDN 경상경비 11.0%·업무추진비 14.0% ▲전력거래소 경상경비 10%·업무추진비 33.6% ▲한전MCS 경상경비 10.1%·업무추진비 43.3% 등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감축했는지만 경정하는 상황에 내몰려 노사갈등은 물론이고 직원들 업무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당장 정원을 줄이는 데 치중하면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ESG위원회' 개최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김형순·앞줄 가운데)가 최근 광주시 동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5차 ESG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12명이 사회공헌활동과 연료전지·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 도시가스 소매요금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양에너지 제공>

## '최악 적자' 전력그룹사, 지난해 5462억 성과급

1.6% 감소 속 KDN은 3.4% 늘어 그룹사들 5년간 2조4869억 지급

지난해 한국전력 성과급이 전년보다 12%가량 감소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과 11개 자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받은 성과급은 2조4869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같은 기간 성과급 8625억원을 받았다. 국제 유가 급등 영향으로 적자를 낸 지난해에는 1599억원을 받으며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820억원)보다 12.1%(-221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성과급은 지난 2017년 1770억원에서 2018년 1675억원, 2019년 1761억원, 2020년 1820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반락했다. 한전을 포함한 전력그룹사들의 지난해 성과급은 5462억원으로, 전년(5551억원)보다 1.6%(-89억원) 줄었다. 전력그룹사 가운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전KPS도 성과급이 2020년 467억원에서 지난해 415억원으로, 11.3%(-53억원) 줄었다. 반면 한전KDN 성과급은 지난해 380억원으로, 전년(367억원)보다 3.4%(13억원) 늘었다. 박수영 의원은 "5년간 적자가 급증한 한전과 자회사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방만한 경영을 하고도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평평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DN, 시각장애인 IT 격차 해소 공간 마련

목표에 'KDN IT 온' 조성  
한전KDN이 전남지역 시각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IT)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섰다. 한전KDN은 27일 목표에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에 1호 'KDN IT 온(ON)'을 기증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장현 한전KDN 사장과 김영일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박춘복 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KDN IT 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정보의 불을 밝히려는 취지로 이름 지어졌다. 한전KDN은 지난 2017년부터 아동복지시설과 IT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공간 'KDN IT 온'을 조성해오기도 했다. 이날 조성된 공간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IT 격

차 해소를 위한 전자정보기기, 센스리더, 대화면 PC 등이 마련됐다. 한전KDN은 'KDN IT ON'을 전국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김장현 사장은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IT시설인 KDN IT ON을 공기업 최초로 구축하게 되서 뜻깊다"며 "ICT를 전문으로 하는 한전KDN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 실천으로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사학연금, 펀드 위탁사 4곳 선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27일 펀드 위탁운용사 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금융사는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스톤브릿지캐피탈, 스티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엔프라이빗에쿼티 등 4곳이다. 이들 회사는 사학연금이 출자한 6000억원 규모 PEF(비공개)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회사당 1000억원을 출자한다.

사학연금은 지난달 제안을 받아 1차 정량평가 때 8개사를 뽑고, 현장 실사와 '투자심의위원회' 정성평가를 거쳐 4곳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우수한 PEF 위탁운용사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자금운용수익률을 높일 것"이라며 "공적 연금으로서 ESG 경영방향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 기초반 / 특수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 상업지구</li> <li>▶ 유흥가능 (전용 100평)</li> <li>▶ 시세 - 10억</li> <li>▶ 급매 - 6억8천</li> </ul>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 (유흥가능, 사무실, 빠, 룸, 홀덤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수익 - 720만</li> <li>● 연수익 - 9000만</li> <li>●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li> </ul>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li> <li>2) 중급반 (실전부터 ~)</li> <li>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li> <li>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li> </ol>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남구 지석동 (토지)</td> <td>▶ 감평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울솔의아침)</td> <td>▶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td> </tr> <tr> <td>북구 삼각동 (여린이집)</td> <td>▶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td> <td>▶ 감평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td> <td>▶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td> </tr> <tr> <td>서구 농성동 (토지)</td> <td>▶ 감평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td> </tr> <tr> <td>서구 풍암동 (토지)</td> <td>▶ 감평가 25억 → 최저가 14억</td> </tr> <tr>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td> <td>▶ 감평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td> </tr> </table>	남구 지석동 (토지)	▶ 감평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울솔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평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평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남구 지석동 (토지)	▶ 감평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울솔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평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평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6670-9800		010-2614-9801																